

## 자사주 소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사주 소각은 매입한 자사주를 말 그대로 소각하는 겁니다. 소각은 태워 없앤다는 뜻인데 실제 주식을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회사가 기껏 돈을 주고 사들인 자사주를 그냥 소각해버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 100억원어치를 사서 소각하는 것은 100억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데요. 그 이유는 회사 금고에 있던 100억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뿌려졌고 그 대가로 회사는 자사주를 받긴 했지만 그걸 태워 없앴으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셈이니까요. 현금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이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현금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16.5%)를 내야 하고 배당금액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또 내야 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한 톨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1조원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그만큼 발행주식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주식 한 주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이해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 대신 삼성전자의 금고에서 11조원이 날아가니까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1조원어치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게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려면 그 삼성전자 금고에 있던 11조원의 현금이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계산할 때는 11조원의 가치만큼 반영이 안되어 있었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

A사가 현금 100만원을 들여 자기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했다(주당 2만원에 50주). 그러면 자본총계(이하 줄여서 그냥 자본이라고 표현한다. 자본과 자본금은 구별한다)가 100만원만큼 줄어든다.

A사가 과거 언제인가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자본증가에 기여했던 주식을 이제 다시 거둬들이 회사 소유로 만들었으니, 자본에서 100만원만큼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식은 금전가치가 있지만, 발행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자기주식은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 자기주식을 나중에 소각하라고 하자. 기본적으로 주식을 새로 찍으면 증자다. 자본금이 '발행주식수X액면가'만큼 증가한다.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다. '소각주식수X액면가'만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A사의 자본항목에서 자본금은 얼마나 줄어든가. 당연히 '소각주식수 50주X액면가 5000원=25만원'이다. 이렇게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자본금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감자소각이다. 회계 처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75만원은 뭔가? A사가 100만원에 매입한 자기주식은 나중에 매입가격 그대로 외부에 되팔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소각해 없애버리는 바람에 자본금이 25만원 줄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75만원은 회사가 손해를 본 것으로 간주하여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감자차손도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인데, 자본에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자본 총.  
= 자본 총.

원하는 주들의 주식만 소각  
— 주들의 주식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소각

또한 굳이 구분해보면 주식소각의 방법으로는, ①주식소각이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나누어지고, ②주식소각에 대한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누기도 함. 유상소각은 매입소각이라고도 하며, 강제소각보다도 임의소각으로 행하여지고 실질상의 자본금감소에 주로 이용되는 반면, 무상소각은 강제소각으로 행하여지기 쉽고 계산상의 자본금감소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